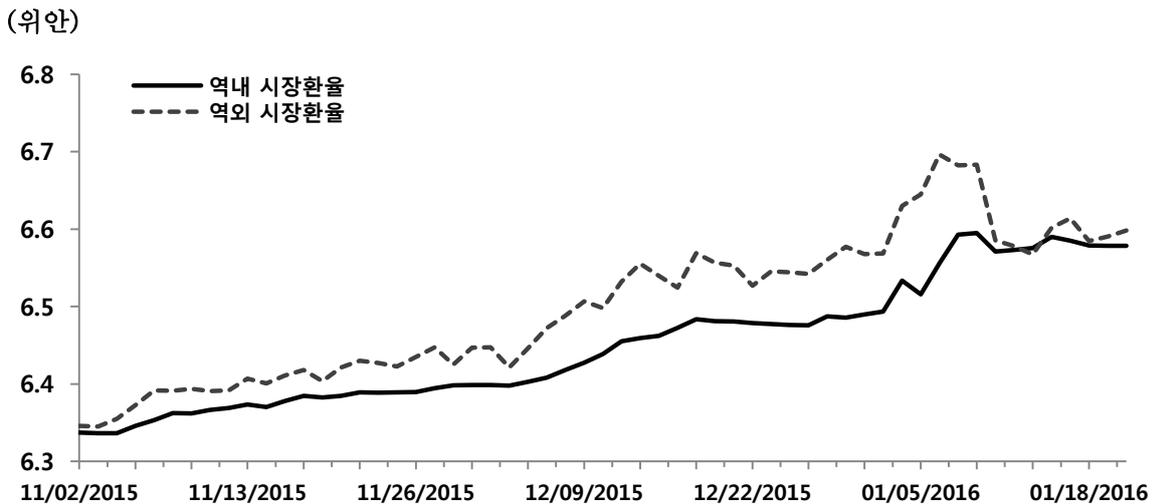


중국 위안화 환율 전망

□ 금년들어 미달러대비 위안화 환율의 변동성 크게 확대

- 위안화 역내환율은 전년말 달러당 6.4937위안에서 1월 20일 6.5784위안으로 1.3% 상승
- 역외환율은 같은기간중 달러당 6.5686위안에서 6.5981위안으로 0.4% 상승
- 역내외 환율격차는 0.0749위안에서 0.0197위안으로 축소

미달러대비 위안화 환율 추이(역내, 역외)



자료 : Bloomberg

□ 금년중 위안화의 대미달러 환율이 상승한 것은 중국경제 둔화폭 확대 예상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

- 미국 금리상승 예상 등으로 2015년중 미달러대비 4.6% 상승한 위안화 환율은 - 중국경기 둔화폭 확대예상 - 중국의 환율 운용방식 변경시사 - 신흥국 경제위축 심화 - 유가급락 등이 맞물리면서 금년 들어서도 단기간내 크게 상승

- 중국정부는 1월 7일 앞으로 위안화 환율은 미달러화 뿐만 아니라 여타 주요국 통화가치도 함께 감안하여 운용될 것이라고 발표
 - 2014년말 100.0(미달러당 6.2055위안)을 기준으로 하는 “외환거래센터(CFETS) 위안화 환율지수”는 1.15일(미달러당 6.5849위안)에는 100.39로서 기준일 대비 0.39% 절상되었는데 이는 유로화가 같은기간중 미달러화대비 10.4% 절하된 데 주로 기인

■ 외환거래센터(CFETS)* 위안화 환율지수

* China Foreign Exchange Trade System

- 중국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13개국 통화가치를 가중평균한 “외환거래센터(CFETS) 위안화 환율지수”를 공표
- “CFETS 위안화 환율지수” 구성 통화비중은 미달러화 26.4%, 유로화 21.39%, 엔화 14.68%, 홍콩달러화 6.55% 등임

□ 향후 위안화 환율은 중국경제에 대한 시장의 평가에 좌우될 것으로 예상

- JP Morgan Chase, Morgan Stanley 등 해외 IB들은 중국 경제의 성장속도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여 금년중 위안화가 지속적으로 절하될 것으로 전망(금년중 약 5% 절하 예상)
 - 최근 1주일간 위안화 12개월물 선물거래는 미달러당 6.9위안 내외에서 거래되고 있음
 - * 최근 10개 해외 IB의 2016년 4/4분기 미달러화대비 위안화 환율전망은 6.63~6.98위안, 평균 6.83위안임
 - ** Reuter(1.7일) 등 일부에서는 위안화가 현수준에서 최대 15%까지도 절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

□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정부가 위안화의 지나친 약세를 바람직하지 않게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위안화가 현 수준에서 크게 변동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

- 최근 중국정부가 역외시장에서 위안화를 적극적으로 매입*함으로써 위안화 가치는 안정되는 모습

* 영국 파이낸셜타임즈(1.12)는 중국인민은행이 위안화 환율상승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역외시장에서 위안화를 대거 사들이고 있다고 보도

- 또한 중국 역외은행의 위안화 지급준비율 도입(1.25일)으로 인해 위안화 매도물량의 축소가 예상됨에 따라 추가하락을 제약할 것으로 전망

- 미국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화 가치 상승이 금년 3월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위안화 환율도 조만간 안정될 가능성

담당: 백충기 수석연구위원
김민준 책임연구원
Tel. 051) 620-3186